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

환영사

2019. 12. 10. (화) 10:10~10:20

포시즌즈 그랜드볼룸 (3F)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먼저, 6번째를 맞이한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특히, 금년 「국제금융협력포럼」은 해외 13개국 금융당국과 금융 유관기관에서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준비되었습니다.

툰 툰 나잉(Tun Tun Naing),
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 사무차관님(Permanent Secretary),
삐에르 페링(Pierre Ferring) 룩셈부르크 대사님,
나오유키 요시노(Naoyuki Yoshino) ADBI** 소장님을 비롯하여

* Ministry of Planning, Finance and Industry, '19.11월 기재부와 산업부 통합

**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멀리서 이번 포럼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럼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손상호 의장님,
그리고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회원기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디지털 전환의 의미와 흐름

참석자 여러분,

국제금융협력포럼은
각 국의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산업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입니다.

나아가

글로벌 금융 트렌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인

‘디지털 전환’은 금융산업이 당면한
현실적인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생활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등
우리 삶의 모든 면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3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연결사회의 도래입니다.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람이 IoT, 모바일과 플랫폼으로
다각도로 연결되면서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은 공유와 개방을 통해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중개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출현입니다.

흩어져 있는 현실의 데이터들이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빅데이터로 축적되고
축적된 데이터가 인공지능, 딥러닝의 과정을 거쳐 학습되면
'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통해
다시 현실세계에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Offline과 Online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Big Blur'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이중 산업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Ⅲ. 미래금융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 정부는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혁신성장을 위한
8개의 선도사업을 지정하였는데
금융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결합인 '핀테크'가 포함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에는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투자 유치, 성장 및 해외진출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규제체계를 혁신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정부의 경험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8개 분야에 대해 24개 과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중 몇 가지 핵심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제도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100건의 서비스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규제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임시 인·허가인 스몰라이센스 부여 등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춰 나갈 것입니다.

둘째, 국내외 투자자들이
핀테크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는 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IPO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코스닥 상장제도를 보완하여
핀테크 친화적 상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결제·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금융혁신 인프라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오픈뱅킹을 전면 시행하여
조만간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마이데이터 산업과 같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우수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년까지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5개 이상의 금융회사 핀테크 랩을 설치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이 국내 금융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상호간의 핀테크 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베트남·영국·싱가폴·프랑스와 핀테크 협력 MOU 체결

IV. 맺음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금융의 미래는
금융업의 융·복합 현상이
궁극적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통해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천재는 아무도 못 보는 표적을 맞힌다'고 하였습니다.
(Genius hits a target no one else can see)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고객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보이지 않는 표적을 맞히는 기업이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이러한 성공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높이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들 모두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